

## 독일통일 후 동독 출신자의 지각된 차별감과 통일에 대한 태도\*

양계민\*\* · 이우영\*\*\*

본 연구는 독일 통일 후 동독 출신자들이 경험하는 지각된 차별감과 통일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통일된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을 위하여 동독 출신자 450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차별감, 통일에 대한 태도, 심리적응 수준 등을 조사하고, 배경특성에 따른 분석 및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각된 차별감 중 집단적 수준의 차별감이 개인적 수준의 차별감 보다 통일에 대한 태도와 더 큰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수준의 차별감은 자아존중감과, 집단적 수준의 차별감은 삶의 만족도와 더 큰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독 출신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으로 차별을 경험한다고 느끼기보다는 집단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하며, 이러한 집단적 차별의식이 통일에 대한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추후 통일 한국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인식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독일통일, 차별지각, 통일에 대한 태도, 동독 출신, 심리적응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578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1. 문제 제기

독일은 통일의 결과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측면에서는 통일 이전보다 훨씬 발전된 국가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사회적 측면에서는 동서독 주민 간 마음의 통합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sup>1)</sup>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사회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독일의 정치경제 엘리트 전문가들은 독일의 통일에 대하여 “내적, 사회적 통일의 완성”은 1990년대의 대다수 행위자들이나 관찰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고, 그 이후 1995년이나 2000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2008년 연방수상 메르켈 역시 “많은 영역에서 동서독 간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마도 4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sup>2)</sup> 이렇게 통일 후 3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동서독 간 사회적, 심리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서독 주민 간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못하는 이유 중 중요한 요인은 갑작스러운 통일로 인하여 동독 주민들이 경험하는 문화충격, 동서독 간 경제적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서독 주민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 등 여러 요인이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집단에 대한 불만으로 형성되어 마음의 장벽을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중 특히 동독 주민들이 경험하는 통일 후의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감은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보면 동독

---

1) 양계민, “통일이후 독일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북한연구학회보』, 제21권 1호 (2017), 82쪽.

2) 이동기, “독일통일 후 동독정체성: 오스탈기는 통합의 걸림돌인가?” 『역사와 세계』, 제50호(2016), 30~31쪽.

출신자들의 경우 통일로 인하여 독재정권에서 해방되었고, 직업선택, 거주이동, 여행의 자유 등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낮는데,<sup>3)</sup> 동독 출신자들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낮게 만드는 가장 강한 요인은 경제적 격차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4)</sup> 어느 사회에서건 한 국가 내의 집단 간 경제적 격차는 단순히 빈부의 격차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열등감으로 이어지고, 심리적 열등감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통일에 대한 불만을 유발할 수 있고, 결국은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그러나 집단 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단순히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고, 동독 주민들이 경험하는 차별감의 속성을 좀 더 심도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통일을 대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고, 그러한 노력들 중 하나가 통일 후 한반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호 간의 이해와 심리적 적응을 위한 준비이다. 45년간의 분단시기를 겪은 독일이 통일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도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다면, 분단된 지 올해로 76년이 된 한국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통일은 정치·경제적 수준의 통일만이 아닌 남북한 주민의 마음의 통일을 기반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이므로 통일을 대비하는 노력에서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이 남북한 주민의 마음의 통합이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회를 생각해 볼

---

3) 이기식, 『독일통일 25년 후』(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08), 43쪽.

4) 위의 책, 61쪽.

때 차별감과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집단은 북한 주민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상호 간 신뢰를 제고하고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한 주민과의 격차로 인한 차별감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통일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동독 출신자들이 경험하는 차별감, 통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심리적응 수준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특히 동독 출신자들이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차별감의 속성과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지각이 통일에 대한 태도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미래 통일 한국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갈등의 문제, 그중 특히 북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차별감과 통일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2. 선행연구 검토

### 1) 독일 통일 후 동서독의 사회적 통합

통일 30주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독일 통일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통일 직후 독일의 경제는 저성장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에는 경제개혁으로 독일의 경제력은 더 크고 견고해졌으며,<sup>5)</sup> 현재는 정치, 경제, 군사 등 거의 모든

---

5) 손선홍, 『독일통일 한국통일』(서울: 푸른길, 2016), 310쪽.

측면에서 성공적인 유럽의 지도적 권력으로 여겨지고 있다.<sup>6)</sup> 독일주민의 통일에 대한 만족도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독일에서 추진된 한 조사<sup>7)</sup>에 따르면, 1999년 9월 독일 통일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독일인의 65%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 11월에는 79%로 증가하는 등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 주민들 간의 ‘내적 통일’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 초기, 동서독 주민의 내적 통일에 대한 기대는 매우 낙관적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운 일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몇 년에 한 번씩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의 달성에 필요한 기간을 예상해 보도록 했을 때, 통일 직후에는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기간을 매우 짧게 생각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소요 시간을 더 길게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특히 이 중 사회통합에 걸리는 시간이 경제통합에 걸리는 시간보다 더 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96년 조사에서 독일 국민들은 경제통합에 비해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5년에서 1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한편, 롤프 라이시히(Rolf Reißig)는 통일에 대한 동독인의 태도 변화

6) “통일 30주년 독일은 지금,” 『시사인』, 2019년 7월 31일.

7) ARD-DeutschlandTREND(2017.11); 김상철, “독일 통일 후 구동독지역의 사회정착과 사회통합,” 『질서경제저널』, 제22권 2호(2019), 21쪽 재인용.

8) 고상두,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유럽연구』, 제28권 2호(2010), 275쪽.

를 3단계로 설명한 바 있다. 제1 단계는 환희의 단계로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공식적 통일을 선언하는 시기까지를 말하는데, 독일통일에 커다란 환희와 자긍심을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단계였다. 제2 단계는 1991년 초에서 1994년까지의 시기로 충격의 단계인데, 이때는 동독인들이 체제전환의 충격과 통일쇼크에 의해 삶의 기반을 잃고 그간의 문화단절과 문화충격을 집중적으로 경험하는 시기로 설명된다. 제3 단계는 성찰의 단계로 1995년부터 2005년까지를 말하는데, 동독인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동독인의 공동체 의식과 집단적 정체성에 눈을 뜨고 집단적 자의식을 키워 나간 시기로 설명되고 있다.<sup>9)</sup>

이와 관련하여 김누리 등<sup>10)</sup>은 동독인들의 강화된 자의식이 동독지역의 부분문화(Telgesellschaft)<sup>11)</sup>를 생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동서독간의 문화차이는 좁혀지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동독인들은 지금도 스스로를 ‘2등 국민’이라고 자조하며 저항적 정체성을 펼쳐 내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 예로 2019년 동독지역의 작센과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주의회가 있었는데, 독일을위한대안(AfD)라는 극우정당이 두 지역 모두에서 2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이 선거를 즈음하여 동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 결과에서 동독 주민의 66%가 자신을 2등 국민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이는 매우 최근의 조사결과로, 통일이 된 지 30년이 지난

9) 김누리 외, 『통일독일의 문화변동: 동독의 귀환, 신독일의 출범』(한울엠플러스, 2009), 23~24쪽.

10) 위의 책, 25~26쪽.

11) Rolf Reißig, “Die gespaltene Vereinigungsgesellschafts”(Dietz Verlag, 2001), p.252  
재인용.

12) 김누리, “독일통일 3대 신화: 독일통일 30년과 한반도,” 『통일인문학』,

시점에서조차 여전히 많은 동독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는 현상은 놀라운 일로 보인다. 이는 갑자기 찾아온 동서독 통일이 일방적인 서독 질서의 이식으로 진행되어,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동독의 질서로 이식됨에 따라 동독의 사회주의적 통제경제가 서독의 시장경제로 대체되었고, 교육제도, 복지제도, 노사관계 등이 모두 서독의 기준에 따라 재편되었으며, 그 결과 서독인은 통일 전과 달라진 것이 크게 없는 삶을 살아간 반면, 동독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 온 삶의 방식이 총체적으로 부정당했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으로, 13) 서로 다른 체계의 사회통합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 2) 동독 출신자들이 경험하는 차별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통일 직후부터 한동안은 동서독 사람들 모두 불만이었고, 서로 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중 불만족도가 더 높은 쪽은 동독 출신자들이며 스스로를 2등 국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도 당시 독일의 국민복지연대가 시행한 동독 주민의 통일 인식<sup>14)</sup>을 보면 동독 주민의 80%는 자신의 미래상황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5)</sup> 통일 이후 기대했던

---

84(2020), 120쪽.

13) 김상철, “독일 통일 후 동독지역의 사회정책과 사회통합,” 『질서경제저널』, 제 22권 2호(2019), 2~3쪽.

14) 국민복지연대(2007.1.)의 조사 결과는 이기식, 『독일통일 25년 후』, 167쪽에 제시한 내용을 재인용했다.

15) 이기식, 『독일통일 25년 후』, 167쪽.

것에 비하여 물질적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범죄율이 오르고, 도시가 폐허화되는 등 통일 이후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독 출신자들은 통일 전 동독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향수(오스탈기)를 느끼기까지 한다.

또한 동서독 주민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사한 다른 조사에서도,<sup>16)</sup> '통일이 서독/동독 주민에게 많은 손해를 가져다주었다'는 문항에 대하여 서독 주민은 55.9%, 동독 주민은 57.3%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동독의 재건을 위해 힘쓴 서독/동독 주민의 노력이 평가받지 못하였다'는 문항의 경우는 서독 주민의 53.9%, 동독 주민의 75.2%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고, '서독/동독 주민이 상대 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하였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서독 주민의 44.1%, 동독 주민의 72.4%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다. 즉, 70% 이상의 동독 주민들이 자신들의 노력이 평가받지 못했고, 동독 주민에 대한 서독 주민들의 이해심이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sup>17)</sup>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지각된 차별감은 지금까지도 동독인들의 마음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각된 차별감(perceived discrimination)이란 '인종, 민족,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위치, 비만, 성적 지향 등 개인이 지닌 속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공평하게 취급된다는 개인의 지각이다.'<sup>18)</sup> 사회적으로 지각된 차별감을 경

---

16) GMG Survey(2008); 고상두,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280쪽 재인용.

17) 고상두,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280쪽.

18) R. C. Kessler, K. D. Mickelson and D. R. Williams, "The prevalence, distribution,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40(1999), pp.208~230.



험하게 되는 집단은 한 사회의 소수집단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지각된 차별감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종적 소수집단이나<sup>19)</sup> 이민자<sup>20)</sup> 등의 경우 지각된 차별감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쉬운데, 지각된 차별감은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1)</sup>

동독 주민의 경우 인종적 소수집단이나 이민자는 아니나 독일사회 내에서 2등 시민이라고 인식하는 등 소수집단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영란의 연구에 따르면<sup>22)</sup> 통일 이후 14년이 지난

---

19) S. Karlsen and J. Y. Nazroo, "Relation between racial discrimination, social class, and health among ethnic minority group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92(2002), pp.624~631.

20) S. Noh, M. Beiser, V. Kaspar, F. Hou and J. Rummens,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depression and coping: A study of Southeast Asian refugees in Canada," pp.193~207.

21) J. Crocker and B. Major,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Vol.96(1989), pp.608~630; J. Crocker and B. Major, "The stigma of overweight: Affective consequences of attributional ambigu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4(1993), pp.60~70; B. Major, "From social inequality to personal entitlement: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s, legitimacy appraisals and group membership," in M. P. Zanna(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26, pp.293~348(San Diego, CA: Academic Press, 1994); M. Rog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M. Ruggiero and D. M. Taylor, "Coping with discrimination: How disadvantaged group members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8(1995), pp.826~838; M. Ruggiero and D. M. Taylor, "Why minority group members perceive or do not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The role of self-esteem and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2(1997), pp.373~389.

시점에도 독동 주민들은 여전히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동독의 과거 역사에 대한 평가절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대우, 생활수준의 불균형, 통일과정에서의 배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독동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차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독동 주민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통일과정에서 독일의 정치, 경제,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서독 엘리트 지배가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동독인은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박탈감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즉,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서독 주도로 이루어진 통일과정의 일방성과 그에 따른 피해의식이 주요 이유라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 중 연구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 중 특히 고학력자들은 서독에서 온 수입 엘리트들에 의해 직장의 요직을 점령당하고 가장 생생하게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는 집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sup>22)</sup>

또한 통일 직후 나타난 대량해고, 실업위기, 이직 등과 같은 노동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라 2등 국민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독일의 빈곤율을 비교하면 동서독 간에 실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빈곤율이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00년대 초반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서 빈곤율은 서독지역에 비하여 동독지역에서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구 동독지역의 빈곤율은 19.7%인 것에 비하여 서독지역의 빈곤율은 14.7%였다. 특히 2015년 당시 동서독 지역의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구 동독지역이 69.2%, 구 서독지역이 54.4%로

---

22) 이영란, “통일 이후 동독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한국사회학』, 제39권 1호 (2005), 152~153쪽.

23) 위의 글, 155쪽.

매우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sup>24)</sup> 동독 시절에 실업을 경험하지 못한 동독인들에게 실업은 자신을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하게 하였고, 불평 등한 취업 기회에 다시 한번 좌절을 겪으면서 일상에 대한 불만, 사회 부적응, 자존심 상실, 자기 비하, 의기소침, 고독감, 인내심 상실, 사회 불신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빠졌다.<sup>25)</sup>

사실상 통일 이후 동독 출신자들 중 학력이 높거나 나이가 젊은 층은 대부분 서독으로 이주를 하였고,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연령이 높은 집단이거나 젊은 세대의 경우 학력이 낮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서독으로 떠나기에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분석되고 있다.<sup>26)</sup> 물론 동독의 인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여 1989년부터 2015년까지 5.2백만 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를 하였고, 2019년 현재 기준 동독의 인구는 1905년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7)</sup> 특히 동독의 남자보다 여자들이 서독으로 이주를 많이 하여 파트너를 구할 수 없는 젊은 남성 집단이 사회불만 세력으로 등장했다는 설명도 있다.<sup>28)</sup>

사회적 차별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차별 경험자들은 사회의 부당함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자신들이 속한 집단에 대한 동

---

24) Statistisches, *Amtliche Soziabrichterstattung* (2015); 김상철, “독일 통일 후 구동독지역의 사회정책과 사회통합,” 14~15쪽 재인용.

25) 이영란, “동독인의 상대적 박탈감,” 102쪽.

26) 이기식, 『독일통일 15년의 작은 백서』, 109쪽.

27) Rösel, F. *Die Wucht der deutschen Teilung wird völlig unterschätzt, ifo Dresden berichtet*, Vol.3(2019), pp.23~25; 김상철, “독일 통일 후 구동독지역의 사회정책과 사회통합,” 12쪽 재인용.

28) 이기식, 『독일통일 15년의 작은 백서』, 109쪽.

일시가 더욱 높아지는데, 이러한 특성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sup>29)</sup>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동독 출신자들이 지속적으로 차별감을 지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각된 차별감은 특정한 연령층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 출신자들의 전 연령층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이 된 이후 출생한 동독지역 고등학생들을 인터뷰한 이영란의 연구에서는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평균연령이 연구 당시 17세로 1987년 전후로 출생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구 동독에 대한 미화된 인식, 서독 사회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영란은 이미 통일이 된 이후에 태어나 구 동독의 교육과정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은 가족이나 동독지역 언론매체의 영향으로 인한 사회화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즉, 통일 이후 30)들의 정서적 심리적 상황은 부모로부터 자녀로 대물림되어 자녀 세대 내에서도 재생산되고, 의식,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동독지역의 정체성을 확대 및 강화시키는 데 동독의 매체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sup>31)</sup>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통일된 지 30년이 넘어서까지 동독 출

---

29) J. Crocker and B. Major,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p.608~630; J. C. Turner and R. Brown, "Social status, cognitive alternatives and intergroup relations," in H. Tajfel(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235~250(London: Academic Press, 1978).

30) 위의 글, 2~3쪽.

31) 이영란, "집단적 아이덴티티와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 동독지역 고등학생들의 집단적 아이덴티티 형성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9권(2005), 288~290쪽.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차별감은 세대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점차 약화될 수는 있지만 가족구성원이나 매체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끈질기게 남아 있으며,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동독 주민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차별감을 경험하게 될 경우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 저하 등 심리적으로 부정적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결국 동독인이 경험하는 지각된 차별감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한 사회에서 차별감을 지각하는 경우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안녕감을 저해하고,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며, 자존심의 저하를 가져오는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sup>32)</sup> 이러한 집단 간 갈등의 문제는 향후 통일 한국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바, 본 연구에서 동독 출신자들의 지각된 차별감과 통일에 대한 태도와 심리적 적응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 3. 연구문제 및 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독일이 통일된 지 3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동독 출신자들이 지각하는 차별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동독 출신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지각이 통일에 대한 태도와 어떤 관련이

---

32) 양계민·이우영, “북한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느끼는 현실갈등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차별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30권 1호(2016), 136쪽 재인용.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동독 출신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특성과 심리적응 요인을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동독 출신자들이 지각하는 차별감과 통일에 대한 태도의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동독 출신자들의 심리적응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동독 출신자들의 지각하는 차별감은 배경특성, 심리적응 수준 및 통일에 대한 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 연구방법

### (1) 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자는 독일에 거주하는 성인 중 동독 출신자 총 450명으로 각 배경특성별 빈도는 <표 1>과 같다. 조사 대상자 중 남자는 230명(51.1%)이었고, 여자는 220명(48.9%)로 거의 반반이었다. 이 중 현재 동독에 거주하는 동독인은 311명(69.1%)였고, 서독에 거주하는 동독인은 139명(30.9%)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80명(17.8%), 30대가 89명(19.8%), 40대가 96명(21.3%), 50대가 101명(22.4%), 60대 이상이 84명(18.7%)이었다. 주관적 가정형편은 '아주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34명(7.6%)이었고,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9명(15.3%),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77명(39.3%),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34명(29.8%)이었으며, '아주 잘산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6명(8.0%)이었다. 그에 비해 월평균 소득수준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4,500유로 이상

〈표 1〉 조사 대상자 배경특성

배경특성		빈도(%)		배경특성	빈도(%)
성별	남	230(51.1)	월평균 소득 수준	1000유로 미만	60(14.7)
	여	220(48.9)		1,000~1,499유로	60(14.7)
현 거주지	동독	311(69.1)		1,500~1,999유로	56(13.8)
	서독	139(30.9)		2,000~2,499유로	62(15.2)
연령집단	20대	80(17.8)		2,500~2,999유로	67(16.5)
	30대	89(19.8)		3,000~4,499유로	68(16.7)
	40대	96(21.3)		4,500~4,999유로	22( 5.4)
	50대	101(22.4)		5,000유로 이상	12( 2.9)
	60대 이상	84(18.7)		Grund-/Hauptschule (초등학교/보통학교)	30( 6.7)
직업 유무	있다	289(64.2)		최종 학력	Realschule(실업학교)
	없다	161(35.8)	Gymnasium(인문계고등학교)		46(10.2)
주관적 가정 형편	아주 어렵다	34( 7.6)	Ausbildung(직업학교)		202(44.9)
	어려운 편이다	69(15.3)	Fachhochschule(전문대학)		33( 7.3)
	보통이다	177(39.3)	Hochschule(Diplom)(대학교)		55(12.2)
	잘사는 편이다	134(29.8)	Hochschule(Magister/Master) 석사 이상		28( 6.2)
	아주 잘산다	36( 8.0)	전체		450(100.0)

주: 무응답은 제외했다.

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수준에서 60명 내외였다. 최종학력의 경우는 Grund-/Hauptschule(초등학교/보통학교) 이하가 30명이었고, Realschule(실업학교)가 56명(12.4%), Gymnasium(인문계고등학교)이 46명(10.2%), Ausbildung(직업학교)이 202명(44.9%), Fachhochschule(전문대학)가 33명(7.3%), Hochschule(Diplom)(대학교)가 55명(12.2%), Hochschule[Magister/Master(석사)] 이상이 28명(6.2%)이었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자 중 직업

이 있는 경우가 289명(64.2%)이었고 없는 경우가 161명(35.8%)이었다.

## (2) 조사절차

본 조사는 독일 온라인패널을 활용하여 2021년 1월 12일 부터 2021년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시험조사 및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우선 연구자가 한국어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최종 설문지를 독일어 전문 번역가가 1차 번역을 하였다. 독일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현재 독일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국인이 1차 검토하고, 이 검토 수정본을 독일 현지인이 2차 검토를 하면서 독일의 현실에 맞는 용어로 수정하고 다시 독일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는 1차 검토자가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독일어판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경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승인번호 1040460-A-2020-004). 완성된 설문지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구성하여 독일 온라인패널사이트에 올리고 조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독 출신자는 현재 통일 전 기준으로 동독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이 동독지역에서 출생하였으며, 부모님도 동독 출신이고, 동독에서 주로 성장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그리고 현재 통일 전 기준으로 서독에 거주하고 있으나 본인이 동독에서 출생하였고, 부모님이 동독 출신이며 본인이 주로 동독지역에서 성장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 (3) 측정변인

### ① 배경특성

본 연구의 배경특성으로는 앞의 조사 대상자 특성 설명에 제시한 성별, 현 거주지, 연령, 직업유무, 주관적 가정형편, 최종학력을 조사



하였다(표 1) 참조). 최종학력의 경우는 한국과 교육체계가 다소 다르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룬트슐레 이하는 중학교로, 레알슐레와 김나지움은 고등학교로, 아우스빌등과 파흐호흐슐레는 전문대학교로, 호흐슐레 이상은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재범주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② 지각된 차별감

지각된 차별감은 개인적 수준의 차별감과 집단적 수준의 차별감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수준의 차별감은 이소래<sup>33)</sup>의 연구에서 이용한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33문항 중 지각된 차별감 문항 중 4개 문항을 선정하여 동독 출신자들이 경험하는 지각된 개인적 수준의 차별감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사회생활에서 서독 출신들과 다르게 취급된다’, ‘서독 출신자들은 내가 동독 출신자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동독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위축된다’, ‘나는 서독 출신자들이 동독 출신자들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총 4개 문항이었다. 집단적 수준의 차별감은 위 연구에서 지각된 차별감을 측정하는 요인 중 ‘독일사회에서 동독 출신자들은 서독 출신자들에 비하여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는 문항과 집단적 박탈감 문항 4문항을 추가한 총 5개 문항으로, ‘독일사회에서 동독 출신자들은 서독 출신자들에 비하여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서독에 비하여 동독의 사회생활 여건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동독이 현재 서독보다 상대적으로 나쁜 처지인 것은

---

33) 이소래,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분명하다', '동독은 서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독일사회에서 동독 출신자들은 서독 출신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나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때 개인적 차별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동독인들이 개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차별지각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집단적 차별감의 경우는 동독 출신자 집단이 서독집단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각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개인적 차별감의 신뢰도는  $\alpha = .78$ , 집단적 차별감의 신뢰도는  $\alpha = .91$ 이었다.

### ③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는 양계민의 연구<sup>34)</sup>에서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독일통일의 각 영역, 즉, 경제, 정치, 사회, 교육, 주택, 세금 등 총 15가지 영역에 대하여 통일 이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했다고 느끼는지를 '매우 긍정적'(1), '다소 긍정적'(2), '중간'(3), '다소 부정적'(4), '매우 부정적'(5)의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분석에서는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도록 하였다.

### ④ 심리적응 요인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의 총 3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상에 응답

---

34) 양계민,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 인식이 통일에 대한 지지에 미치는 영향: 세대별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2권 2호(2019), 62쪽.

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 김신영 등(2006)의 척도를 수정, 보완한 양계민 (2017)<sup>35)</sup>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82$ 였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로젠버그(Rosenberg)<sup>36)</sup>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등을 포함한 총 9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총 5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83$ 이었다.

## 4. 연구결과

### 1) 동독 출신자들의 지각된 차별감과 통일에 대한 태도

#### (1) 동독 출신자들의 지각된 차별감의 문항별 평균

우선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동독 출신자들의 지각된 차별감을 살펴 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적 차별감과 집단적 차별감을 나누어서 보았고 총 5점 만점으로 측정하였는데,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적 차별감은 중간값인 3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집

---

35) 양계민, “통일이후 독일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1권 1호(2017), 85~113쪽.

36) M.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1965).

〈표 2〉 지각된 차별감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5점 만점)

구분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차별감	1	나는 사회생활에서 서독 출신들과 다르게 취급된다	2.60(1.23)
	2	서독출신자들은 내가 동독 출신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2.62(1.18)
	3	나는 서독출신자들이 동독 출신자들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난다	2.66(1.16)
	4	나는 내가 동독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위축된다	2.17(1.15)
		전체	2.52( .92)
집단적 차별감	5	독일사회에서 동독 출신자들은 서독 출신자들에 비하여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3.14(1.19)
	6	서독에 비해서 동독의 사회생활 여건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2.95(1.11)
	7	동독이 현재 서독보다 상대적으로 나쁜 처지인 것은 분명하다	3.00(1.12)
	8	동독은 서독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3.13(1.14)
	9	독일사회에서 동독 출신자들은 서독 출신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나쁜 대우를 받고 있다	2.94(1.17)
	전체	3.04( .98)	

단적 차별감은 3점보다 높거나 3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으로 보았을 때, 개인적 차별감보다는 집단적 차별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차별감의 전체 평균인 2.52와 집단적 차별감의 전체 평균인 3.04의 차이(-.5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지 분석한 결과 두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 = -14.10$ ,  $p < .001$ ). 즉, 동독 출신자들은 개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차별감보다는 자신이 속한 동독 집단이 집단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동독 출신자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의 문항별 평균

동독 출신자들이 통일 후 독일사회의 각 영역에 대하여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5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를 <표 3>에 평균이 높은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동독 출신자들은 국제적 위상이나 개인적인 삶의 질, 경제적인 발전, 전반적 생활환경, 교통통신, 정치발전 등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평균 3점 이상을 보여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지역갈등이나 실업률, 주택문제, 범죄율, 세금부담, 빈부격차 등은 평균 3점보다 낮게

<표 3> 동독 출신자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5점 만점)

	영역	평균(표준편차)
긍정적 측면	국제적 위상	3.51( .91)
	개인적 삶의 질	3.47( .94)
	경제적 발전	3.46( .91)
	전반적인 생활환경	3.36( .90)
	교통통신	3.20( .96)
	사회적 안정	3.16(1.06)
	정치적 발전	3.12(1.00)
	교육의 질	2.95(1.06)
	국가재정	2.95( .92)
	군사력 증강	2.91( .88)
부정적 측면	지역갈등	2.76( .83)
	실업률	2.71(1.00)
	주택문제	2.63(1.04)
	범죄율	2.49(1.02)
	세금부담	2.48( .98)
	빈부격차	2.16(1.03)

평가하여 통일 후 더 나빠졌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낮은 평가항목은 '빈부격차'로 5점 만점에 2.16점의 나타내었다. 이는 동독 출신자들이 독일의 통일이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였다고 평가하지만 빈부격차의 문제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 (3) 지각된 차별감과 통일에 대한 태도의 배경특성별 차이

앞서 살펴본 지각된 차별감과 통일에 대한 태도가 배경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 직업유무별, 교육수준별,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우선 첫째로 지각된 차별감을 개인적 수준과 집단적 수준으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보았는데, 개인적 수준의 차별감의 경우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이나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개인적 수준의 차별감을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가정형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을수록 개인적 차별감을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집단적 차별감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직업유무,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과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른 차이만 나타났는데, 50대 집단이 집단적 수준의 차별감을 가장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대의 차별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른 차이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지각할수록 집단적 차별감을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통일에 대한 태도의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하여 통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연령별로

〈표 4〉 배경특성에 따른 개인적 차별감과 집단적 차별감의 차이

배경특성		지각된 차별감		통일에 대한 태도
		개인적 차별감	집단적 차별감	
성별	남	2.60(.95)	3.10(.92)	3.02(.67)
	여	2.42(.88)	2.97(1.03)	2.90(.62)
	<i>t</i>	2.02*	1.42	2.01*
연령	20대	2.76(.88)	2.90(.89)b	3.19(.64)a
	30대	2.50(.88)	2.88(.92)b	3.08(.69)a
	40대	2.41(1.00)	3.00(1.00)ab	3.01(.67)a
	50대	2.49(.94)	3.27(1.09)a	2.75(.62)b
	60대 이상	2.43(.85)	3.09(.90)ab	2.80(.51)b
	<i>F</i>	1.89	2.46*	7.90***
직업유무	있음	2.47(.94)	2.98(.96)	3.02(.65)
	없음	2.58(.88)	3.13(.99)	2.85(.64)
	<i>t</i>	-1.17	-4.55	2.62**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81(.69)a	2.97(.77)	2.81(.67)b
	고등학교 졸업	2.66(.95)ab	3.08(.98)	3.00(.63)ab
	전문대학 졸업	2.45(.88)b	3.03(.98)	2.90(.63)b
	대학교 졸업 이상	2.41(1.02)b	3.01(1.03)	3.13(.70)a
	<i>F</i>	10.69***	.13	3.26*
주관적 가정형편	아주 어렵다	2.85(.98)a	3.47(1.09)a	2.74(.94)c
	어려운 편이다	2.82(.80)ab	3.46(.98)a	2.60(.62)cd
	보통이다	2.50(.91)bc	2.92(.86)b	2.95(.55)bc
	잘사는 편이다	2.32(.89)c	2.89(1.00)b	3.13(.58)ab
	아주 잘산다	2.37(.99)c	2.90(1.02)b	3.26(.70)a
	<i>F</i>	5.04***	6.93***	11.31***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Duncan:  $a > b > c > d$

는 40대 이하가 50대 이상에 비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이 있는 집단이 통일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주관적 가정형편 역시 높을수록 통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동독 출신자들의 심리적응 수준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등 동독 출신자들의 심리적응 요인을 성별, 연령, 직업유무, 교육수준,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라 비교하였다. 우선 삶의 만족도에서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났는데, 50대의 삶의 만족도가 나머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이 있는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매우 극명하게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가정형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관적 가정형편은 동독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자아존중감의 배경특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성별 차이는 없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직업이 있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중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교 졸업 이하를 제외하고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다



〈표 5〉 배경특성에 따른 심리적응

배경특성		심리적응 요인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성별	남	3.32(.87)	3.68(.65)
	여	3.19(.84)	3.72(.62)
	<i>t</i>	1.64	-.59
연령	20대	3.39(.78)a	3.45(.60)c
	30대	3.30(.90)a	3.54(.66)c
	40대	3.37(.87)a	3.74(.67)b
	50대	2.99(.90)b	3.79(.62)ab
	60대 이상	3.28(.75)a	3.94(.51)a
	<i>F</i>	3.46**	8.79***
직업유무	있음	3.43(.78)	3.77(.62)
	없음	2.96(.91)	3.57(.64)
	<i>t</i>	5.68***	3.13**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3.13(.92)b	3.21(.60)b
	고등학교 졸업	3.17(.87)b	3.58(.68)a
	전문대학 졸업	3.24(.83)ab	3.79(.59)a
	대학교 졸업 이상	3.48(.89)a	3.77(.64)a
	<i>F</i>	2.45***	9.13***
주관적 가정형편	아주 어렵다	2.34(1.20)e	3.21(.64)d
	어려운 편이다	2.74(.61)d	3.51(.66)c
	보통이다	3.18(.76)c	3.67(.60)bc
	잘사는 편이다	3.65(.64)b	3.86(.54)ab
	아주 잘산다	4.04(.54)a	4.04(.75)a
	<i>F</i>	41.70***	12.44***

주: \*\*  $p < .01$ , \*\*\*  $p < .001$ , Duncan: a > b > c > d > e

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삶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가정형편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동독 출신자들의 지각된 차별감과 배경특성, 심리적응 수준 및 통일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세 번째로 지각된 차별감과 나머지 측정요인들, 즉, 배경특성과 심리적응 수준, 그리고 통일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우선 첫째로, 개인적 차별감 및 집단적 차별감과 배경특성의 상관관계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적 차별지각은 낮아지는( $r = -.11$ ) 반면 집단적 차별지각의 수준은 높아지는( $r = .12$ )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인적인 수준의 차별은 낮게 지각하지만, 동독 출신자들이 집단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6>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변인		개인적 차별감	집단적 차별감
배경특성	연령	-.11*	.12*
	주관적 가정형편	-.19***	-.20***
	교육수준	-.13**	-
심리적응	삶의만족도	-.11*	-.16**
	자아존중감	-.36***	-
통일에 대한 태도		-.16***	-.37***

주: \*  $p < .05$ , \*\*  $p < .01$ , \*\*\*  $p < .001$

두 번째로 주관적 가정형편이 낮을수록 개인적 차별감과 집단적 차별감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 = -.19$ ,  $r = .20$ ). 따라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동독인이 경험하는 차별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세 번째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적 차별감은 감소하지만( $r = -.13$ ), 집단적 차별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심리적응 수준과 차별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개인적 차별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r = -.11$ ), 마찬가지로 집단적 차별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16$ ). 이때 집단적 차별감과 삶의 만족도의 부적 관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개인적 차별감과 관계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적 차별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고( $r = -.36$ ), 집단적 차별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개인적 차별감과 통일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는  $r = -.16$ , 집단적 차별감과 통일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는  $r = -.37$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독 출신자의 통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수준에서 경험하는 차별감보다는 자신이 속해 있는 동독 집단 전체에 대한 차별감이 더 큰 요인일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4) 개인적 차별감과 집단적 차별감, 통일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효과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당초 동독 주민들이 개인적 차원 및 집단적 차원의 차별을 지각하는 것이 통일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인적 차별인식과 집단적 차별인식 간의 상관관계가  $r = .66$ 으로 지나치게 높아, 통일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배경변인 및 개인적 수준의 차별감, 집단적 수준의 차별감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했을 경우 개인적 차별감이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베타( $\beta$ )값의 부호가 양수(+)로 바뀌는 결과가 산출되었다.<sup>37)</sup> 따라서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인과관계 분석이 아닌 상관계수의 계수의 강도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각 상관계수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상관계수의 차이검증은 아이트 외(Eid et al., 2011)<sup>38)</sup>의 방법에 근거하여 렌하르트와 렌하르트(Lenhard and Lenhard, 2014)<sup>39)</sup>가 구성한 검증식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적 차별감과 통일에 대한 태도의 상관계수  $r = -.16$ 과 집단적 차별감과 통일에 대한 태도의 상관계수  $r = -.37$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독 출신자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서 물론 개인적 수준의 차별감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지만, 그보다는 동독 집단에 대한 집단 차별감이 더 큰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37) 두 요인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수행했을 때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개인적 수준의 차별감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집단적 차별인식의 베타( $\beta$ )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호가 양수(+)로 나타났고, 개인적 차별지각 요인과 집단적 차별지각 요인을 각각 투입한 경우는 모두 유의미하고 부적(-)의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38) M. Eid, M. Gollwitzer and M. Schmitt, *Statistik und Forschungsmethoden Lehrbuch*(Weinheim: Beltz, 2011).

39) W. Lenhard and A. Lenhard, "Hypothesis Tests for Comparing Correlations," *Psychometrika*(2014), <https://www.psychometrika.de/correlation.html>(검색일: 2021년 5월 10일).

〈표 7〉 동독 출신자들의 개인적 차별감과  
집단적 차별감의 통일에 대한 태도의 상관계수 효과성 차이 검증

$r$ (개인적 차별감, 통일에 대한 태도)	$r$ (집단적 차별감, 통일에 대한 태도)	$r$ (개인적 차별감, 집단적 차별감)	Z
-.16	-.37	.66	5.57***

자료: \*\*\*  $p < .001$

## 5. 결론

본 연구는 독일 통일 후 동독 출신자들이 경험하는 지각된 차별감과 통일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미래 통일 한국의 사회 통합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독 출신자들이 지각하는 차별감의 속성을 개인적 차별감과 집단적 차별감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개인적 차별감보다는 집단적 차별감, 즉, 동독 출신자 전제가 집단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차별과 집단적 차별이 배경특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개인적 수준의 차별경험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인 가정형편이 낮을수록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나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집단적 수준의 차별감의 경우는 성별, 직업유무,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연령과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른 차이는 나타났는데, 50대가 집단적 수준의 차별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고, 20대가 가장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50대는 통일 직후 동독 산업 기반의 경쟁력 약화와 대규모 실직 등 가장 어렵고 큰 변화를 20~30대에 경험한 세대로 가장 큰 차별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세대인 반면, 2004년 이후 유럽의 통합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독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좋아지면서 동독인, 서독인 모두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가 올라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2004년 이후를 경험한 세대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차별감을 덜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동독 출신자들이 경험하는 차별감이 전반적으로 개인적 수준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차별지각보다는 본인들이 속한 동독 출신자 집단 전체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이러한 집단적 차별감은 성별, 직업유무,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나타나며, 연령이 높을수록 집단적 차별감을 많이 느끼는 경향성이 있고,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개인적 차별감과 집단적 차별감 모두와 관련되는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통일에 대한 태도에서 동독 출신자들은 국제적 위상이나 개인적인 삶의 질, 경제적인 발전, 전반적 생활환경, 교통통신, 정치발전 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지역갈등이나 실업률, 주택문제, 범죄율, 세금부담, 빈부격차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중 특히 빈부격차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동독 출신자들이 통일 후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통일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배경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 50대 이상의 집단에 비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관적 가정형편이 높을수록 통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하여 더 적응적인 상황에 있을수록 통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향후 한국사회에서도 통일이 되었을 때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계층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직업이 없는 집단일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 동독 출신자들의 심리적응 수준을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에서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50대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모든 연령층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0대가 통일 직후 20~30대에 가장 변화를 경험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재 50대들의 20~30대의 경험과 현재의 삶의 만족도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추후 실증적 연구를 통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이 없는 경우, 그리고 교육수준과 주관적인 가정형편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역시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직업이 있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에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중학교 이하의 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자아존중감이 낮고, 주관적 가정형편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형편이나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적 적응 수준은 낮다는 기존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넷째로 지각된 차별감과 배경특성, 심리적 적응요인, 통일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개인적 차별감은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집단적 차별감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가정형편이 낮을수록 개인적 차별감과 집단적 차별감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개인적 차별감과 관계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별감 지각에서 주관적 가정형편은 개인적 차별감이든 집단적 차별감이든 상관없이 모두 관련성이 있는 반면, 교육수준은 집단적 차별감과 상관없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즉, 동독 출신자들의 경우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동독 출신자들이 서독 출신자들에 비하여 집단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의 수준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또한, 심리적응 변인과 관련하여 개인적 차별감과 집단적 차별감 모두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나,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개인적 차별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 차별감이 높아지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졌으나 집단적 차별감이 높아진다고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 수준의 차별을 많이 지각하는 경우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지만 동독 집단 전체가 차별을 당한다는 인식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신 삶의 만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다섯째, 동독 출신자들의 지각된 차별감과 통일에 대한 태도의 관계가 개인적 수준의 차별감인지 집단적 수준의 차별감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개인적 수준의 차별감과 집단적 수준의 차별감의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했으나 두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66으로 너무 높아서 회귀분석에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할 수 없는 이유로 대안적으로 상관관계의 효과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차별감과 통일에 대한 태



도의 상관계수( $r = -.16$ )와 집단적 차별감과 통일에 대한 태도의 상관계수( $r = -.37$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 = 5.57, p < .001$ ). 이는 개인적 차별감과 집단적 차별감 모두 통일에 대한 태도와 부적상관이 있으나 개인적 차별감보다는 집단적 차별감이 통일에 대한 태도와 더 크게 상관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동독 출신자들이 경험하는 차별감이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 통일에 대한 태도와 모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수준의 차별이나 집단적 수준의 차별이냐에 따라 다르며, 그중 동독 출신자들의 삶의 만족도와 통일에 대한 태도와 좀 더 관련되는 차별감은 동독 집단 전체가 집단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집단적 차별감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사실상 집단적 차별감의 내용은 실제적인 차별 사례라기보다는 동독 출신자들이 집단적으로 느끼는 지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독 출신자들은 통일이 된 지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집단적 차별감을 느끼고, 이를 재생산 및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은 동서독 주민간의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독의 극우정당들이 동독인의 불만을 자극하고 동서독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sup>40)</sup>에 비추어 볼 때에도, 동독인이 지각하는 집단적 차별감은 통일 후 사회통합 문제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로 보이며, 한국사회도 통일 이후 보다 빠르게 상호 이해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집단적 수준의

---

40) 김누리, “독일통일 3대 신화: 독일통일 30년과 한반도,” 『통일인문학』, 제84권 (2020), 120쪽.

차별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제적인 차별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일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동시에 집단 간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감 등을 관리하는 사회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낙관적인 측면은 연령이 어린 집단의 집단적 차별감 인식 수준이 50대와 60대 집단에 비하여 낮았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집단적 차별감 수준이 개인적 차별감 수준보다 높고, 여전히 집단적 차별감을 가지고 있지만, 연령이 낮은 경우 집단적 차별의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실제로 동서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면 동독 출신자들이 지각하는 차별감의 수준은 현재보다 훨씬 더 낮아질 것이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차별성을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동독 주민들이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감,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을 제시한 것에서 나아가 동독 주민들이 경험하는 차별감을 개인적 수준과 집단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각각이 심리적응의 주요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와 의 관계를 살펴보고, 통일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남북통일이 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남북한 주민들 간의 갈등과 차별의식을 다루는데 있어서, 개인적 수준의 차별뿐 아니라 집단적 차별감을 다루는 일이 중요하다는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11월 8일 / 수정: 12월 6일 / 채택: 12월 13일

## 참고문헌

### 1. 국내 자료

#### 1) 단행본

김누리 외, 『통일독일의 문화변동 : 동독의 귀환, 신독일의 출범』(파주: 한올아카데미, 2009).

손선홍, 『독일통일 한국통일』(서울: 늘플러스, 2009).

이기식, 『독일통일 25년 후』(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이소래,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이영란, “동독인의 상대적 박탈감,” 『머릿속의 장벽: 통일 이후 동서독 사회문화 갈등』, 김누리 편저(서울: 한올아카데미, 2006).

#### 2) 논문

고상두, “통일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유럽연구』, 제28권 2호(2010), 269~288쪽.

김누리, “독일통일 3대 신화: 독일통일 30년과 한반도,” 『통일인문학』, 제84권(2020), 117~151쪽.

김상철, “독일 통일 후 구 동독지역의 사회정책과 사회통합,” 『질서경제저널』, 제22권 2호(2019), 1~29쪽.

양계민,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4권 1호(2010), 111~28쪽.

양계민, “통일이후 독일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1권 1호(2017), 81~114쪽.

양계민,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 인식이 통일에 대한 지지에 미치는 영향: 세대별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2권 2호(2019), 47~86쪽.

양계민·이우영,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느끼는 현실갈등인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차별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2016), 제30권 1호, 131~152쪽.

이동기, “독일통일 후 동독정체성: 오스탈기는 통합의 걸림돌인가?” 『역사와 세계』, 제50호(2016), 29~61쪽.

이영란, “집단적 아이덴티티와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 동독지역 고등학생들의 집단적 아이덴티티 형성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9권(2005), 272~297쪽.

\_\_\_\_\_, “통일 이후 동독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포커스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9권 1호(2005), 137~165쪽.

### 3) 기타 자료

“통일 30주년 독일은 지금,” 『시사인』, 2019년 7월 31일.

## 2. 국외 자료

### 1) 단행본

Eid, M., M. Gollwitzer and M. Schmitt, *Statistik und Forschungsmethoden Lehrbuch* (Weinheim: Beltz, 2011).

Rogenberg, M.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Rolf Reißig, “Die gespaltene Vereinigungsgesellschaft”(Dietz Verlag, 2001).

### 2) 논문

Bogardus, E. S. “Measuring social distance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Vol.9, pp.299~308(1925).

Crocker, J. and B. Major,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Vol.96(1989), pp.608~630.

Crocker, J., B. Cornwell and B. Major, “The stigma of overweight: Affective

- consequences of attributional ambigu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4(1993), pp.60~70.
- Karlsen, S. and J. Y. Nazroo, “Relation between racial discrimination, social class, and health among ethnic minority group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92(2002), pp.624~631.
- Kessler, R. C., K. D. Mickelson and D. R. Williams, “The prevalence, distribution,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40(1999), pp. 208~230.
- Major, B., “From social inequality to personal entitlement: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s, legitimacy appraisals and group membership,” in M. P. Zanna(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26(1994), pp.293~348.
- Noh, S., M. Beiser, V. Kaspar, F. Hou and J. Rummens,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depression and coping: A study of Southeast Asian refugees in Canada,”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40(1999), pp.193~207.
- Ruggiero, M. and D. M. Taylor, “Coping with discrimination: How disadvantaged group members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8(1995), pp. 826~838.
- \_\_\_\_\_, “Why minority group members perceive or do not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The role of self-esteem and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2 (1997), pp.373~389.
- Turner, J. C. and R. Brown, “Social status, cognitive alternatives and intergroup relations,” in H. Tajfel(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London: Academic Press, 1978), pp.235~250.

3) 기타 자료

Claus, Detjen, Die anderen Deutschen: Wie der Osten die Republik verändert, p.109.

W. Lenhard and A. Lenhard, "Hypothesis Tests for Comparing Correlations," *Psychometrika* (2014), <https://www.psychometrika.de/correlation.html>(검색일: 2021년 5월 10일).

Rösel, F., Die Wucht der deutschen Teilung wird völlig unterschätzt, ifo Dresden berichtet, 3(2019).

## The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Attitude about German Reunification Unification of East Germans

Yang, Kyemin(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Lee, Woo Young(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lications of Korean reunificatio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st Germans'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attitude about German reunification. For this purpos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in which 450 easterners participated to answer a survey questionnaire about psychological adaptations, attitude about western Germans,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one's attitude about German reunific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roup dimension's perceived discrimination was more strongly related to the attitude about German reunification than the individual dimension's perceived discrimination. This suggests that the perception that East Germans are discriminated as a group can be a more important factor for social integration than the individual dimension. Therefore, for the integration of Korean society after Korean reunification, integration policy should put

more focus on the group level of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the problem of stereotypes.

Keywords: German reunification, perceived discrimination, eastern Germans, psychological adaptation